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 경주 운곡서원 유연정悠然亭을 지은 도감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운곡서원위원장

운제산(雲梯山 해발 482m) 서쪽 산록(山麓) 용추(龍湫) 직벽에 앉은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연정(悠然亭)은 크지도 적지도 않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들어 정조(正祖) 9년(1785)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린德隣)을 배향할 운곡서원(雲谷書院) 창건(創建)을 주관(主贊)하신 갈산공(葛山公, 諱 宗洛)의 문집(文集) 칠언시(七言詩)에서 순조(純祖) 11년(1811)에 지은 유연정(悠然

亭,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345호) 도감(都監)이 같은 후손이신 권기응(權機應) 공(公)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210년 전 유연정(悠然亭)을 설계했던 갈산공(葛山公) 등 선대(先代)들은 당대의 최고 도목수를 모신 미적 감각을 지녔다. 어느 집 후손인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운곡서원과 유연정(悠然亭) 창건 작업을 이끈 갈산공의 심미안(審美眼)도 대단하셨지만 권기응(權機應) 도감 역시 조선 후기(朝鮮後期)시대를 살았던 최고 도목수, 최고 장인이 분명하다. 이런 인재를 찾아낸 갈산공(葛山公)은 더 위대하고.

도감 권기응(權機應) 공은 그 시대를 살았던 문신이나 부자들이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에 정자(亭子)를 짓던 형식은 따랐지만 설계는 완전히 달랐다. 팔작지붕을 떠받치는 전면 3칸과 옆면 2칸에 쓴 10개 도리 기둥(지름 26cm, 둘레 90cm)은 조선(朝鮮)의 산(山)을 뒤져 얻은 싸리 나무로 세웠다.

후손들이 싸리나무처럼 울고도 쪽쪽 바로 커라는 염원을 담았다.

지름 26cm 높이 3m에 이르는 싸리나무는 심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목재(木材)다. 이런 싸리나무를 본 사람은 없다. 필자 역시 80을 넘긴 나이가 지난 신우대 크기의 싸리는 봤지만 기둥으로 세울만한 싸리나무는 보지 못했다.

골기와 지붕을 받쳐주는 17개 초익공(初翼工, 새 날개 모양 장식) 사이엔 연꽃 봉오리 조각을 넣어 한옥(韓屋)의 건축미(建築美)를 한껏 끌어올렸다. 새날개 장식 사이에 들어간 연꽃, 꽃잎이 터지기 직전 모습이다. 연밭에서 느끼는 기쁨 그대로다.

대청 천정 양쪽은 지붕 서까래가 보이지 않도록 우물 정(井)자 모양 반자로 꾸몄다. 반자 양쪽엔 반월형(半月形, 고건축명 달동자)으로 건축물을 안정시켰다. 반자 사이 45도 각으로 끼운 판재(고건축명 달동자 비너꽃이)에서 지난해 5월 먹으로 그린 3마리의 잉어와 쏘가리 학 그림이 발견돼 또다시 화제가 됐다.

2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했다.

잉어는 후손들의 등용(登龍, 문과급제文科及第)을 빌고 상징한다.

민화 학자들에 따르면 쏘가리(鰲, 쏘가리귀) 귀(鰲)자와 대궐의 귤(關)자의 음이 같아서 같은 등용을 뜻하지만 잉어보다 쏘가리가 한 수위의 대접을 받는 것으로 풀이했다. 잉어 쏘가리 학 그림은 가운데 방천정을 걸어내면 이 건축물 구조상 두 곳쯤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물 정(井)자 반자, 마루로 향한 네모형 작은 기둥엔 ①활짝 핀 연꽃 ②연밭 ③씨앗을 품은 연 ④조금 떨어진 벽면에 연꽃 봉오리 모습이 사실화처럼 양각됐다.



유연정



유연정 장식



유연정 천정, 먹으로 그려진 잉어 3마리

이같은 형태의 정자와 내부구조를 갖춘 정자를 두고 고고학계(韓國考古學界)는 조선(朝鮮) 후기에 지은 하삼도(下三道,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를 이르는 말) 건축물로는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경주시(慶州市) 문화유산부서에서 지난해 9월 3일 문화재학술(文化財學術) 조사를 마쳤다.

건물의 전체 크기도 운전(雲川) 십리 길을 흐르는 허리 자리 용추(龍湫) 직벽 위에 크지도 적지도 않게 세워져 용(龍)이 승천(昇天)하는데도 지장을 주지 않는 슬기로움이 가득 채워졌다. 비록 궁벽한 시골에 태어났어도 용추(龍湫)의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나라와 가문을 빛내는 사대부(士大夫) 후손이 먼 미래까지 이어지기를 염원했다.

정자(亭子) 이름은 도연명(陶淵明, 365-427 송나라 초기시대의 시인詩人)의 시(詩) “채국(彩菊)”에서 유연(悠然)을 따와 지었지만 정자를 세운 갈산공(葛山公) 등 선대들의 학문적 정신은 애련설(愛蓮說)을 지은 북송(北宋)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 ~117 북송시대 주희朱熹 보다 먼저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학자)를 더 흠모했던 것 같다.

연일인(延日人) 정석호(鄭錫祐) 공이 1965년에 지은 기문(記文)에도 주돈이(周敦頤)의 주요 정신사상이었던 광풍제월정(光風霽月亭, 비바람이 그친 뒤의 고요함)을 축으로 글이 이어졌다.

유연정(悠然亭)과 이웃한 곳엔 갈산공(葛山公)의 12대조이신 죽림공(竹林公, 단종端宗의 이모부) 신원(伸元) 전설을 품은 암각수(鴨脚樹, 은행나무)가 2백 50년 풍상(風霜)을 지니고 노거수로 자라 한국(韓國)의 이름난 나무가 됐다.

늦가을, 운곡서원 광장과 유연정 기와골에 앉힌 노란 은행잎, 웅단을 간 듯 곱게 단장된 모습을 보러 이른 새벽부터 서원(書院)을 찾은 전국(全國)의 답사객들로 인해 진입로가 막히고 두 군데 주차장은 차를 못이었다.

건강 칼럼 | 권영훈 한의원 원장

## 동트는 새벽力, 20대 건강 80대까지

간식은 당분보다 염분 가미된 것으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는 땀도 적당히 흘리고 염분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식욕이 떨어져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적게 먹으면 자연히 간식이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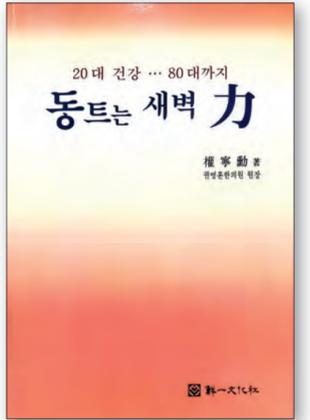
간식으로서는 보통 감미(甘味)가 있는 과자류를 먹지만 이러한 단맛이 나는 것보다는 우유나 스프 종류로 염분을 약간 타서 마시게 되면 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도 건위제(健胃劑)가 될 수 있다. 특히 몸시 배가 고플 때 염기(塩基) 있는 음료를 마시면 위장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므로 식욕을 돋우어 준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만찬 등으로 손님을 초대하였을 경우 기다리는 시간에 풀이나 사이다 또는 과일류를 대접하는 예가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단맛을 먼저 시식(試食)하게 되어 정작 정식 맛을 잃게 되므로 식사가 끝난 후 대접하는 것이 좋다.

중국 사람의 경우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잔멸치나 해바라기씨와 같은 미세한 식품에 염분을 가미해 볶은 것을 심심풀이식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염기가 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위액 분비가 최대한으로 활발하여 기다리던 정식을 맛있게 끝내므로 뒤달 없이 100% 소화도 잘 되고 후에도 그 음식이 생각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단맛과 염분의 차이 또는 식전 식후에 음식 섭취에 대한 습성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최근에 알려진 사실을 보면 피로하였을 때 당분이 있는 것을 먹으면 잠시는 피로가 회복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몸이 다시 피곤해지는 것은 당분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는 피속의 당분이 늘지만 그 반응으로 당분이 다시 줄어들게 되므로 이 때에 피 속에 있던 칼슘도 함께 적어지는 까닭이다. 피 속의 칼슘의 양과 피로도의 관계에서 칼슘이 적어지면 피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당분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염분이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 방에서는 염분을 지칭하여 식염 또는 대염(大塩)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유익함을 주고 장기능 소통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 준다고 한다. 또 한방에서는 '자오미 장위결열(滋五味 腸胃結熱) 소숙식 금인장건(消宿食 今人壯健)' 즉 다섯 가지 맛을 나타내며 위 또는 대장 기능의 흡수 배설 및 소화 작용을 도와주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



들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활에서는 푸성귀 즉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편으로 어느 가정에서나 부식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김치와 깍두기는 우리 음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채소가 귀한 겨울에도 비타민이 풍부한 김치나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추, 파, 마늘, 생강 등의 조미료는 독특한 향취(香臭)와 맛으로 식욕을 향상시키고 소화 흡수를 도우며 간접적으로는 변비를 막아주는 등 좋은 작용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염분이 들어가 별미의 효과가 나므로 앞서 말한 '자오미'라는 뜻이 반찬의 김치가 인간의 입맛을 돋우주는 특유의 뜻을 간직했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추 속에는 위점막을 자극하여 식욕을 촉진하고 비타민의 함유량이 많아 적당히 섭취하면 위벽이 두꺼워지며 식중독이나 전염성 질환에도 강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위나 장에 궤양성이 있는 사람은 급하는 것이 좋다.

고추뿐 아니라 마늘, 파 등도 한방 의서에 한약 재료 등재되어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바, 현대에서 말하는 '코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간의 지방 변성 즉, 육식을 많이 하거나 술이 과하여 간장에 기름이 끼면 헛배가 부르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여 준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것도 평소 식생활에서 식염, 고추, 마늘, 파 등을 상식하고 있는 까닭으로 생각된다.

정정보도

2026년 1월호 2면 '올서년 추향 헌성금' 광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구분	정전 전					정정 후				
	번호	성명 및 단체	금액	지역	비고	번호	성명 및 단체	금액(원)	지역	비고
2026년 1월호 2면 하단 광고	45	權寧範	150,000	山淸	齋有司	45	權永範	200,000	山淸	齋有司
	합계			13,350,000		합계		13,400,000		

# 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

## 행복한 여행의 시작과 끝을 공항리무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컨템포디브



인천공항 전경